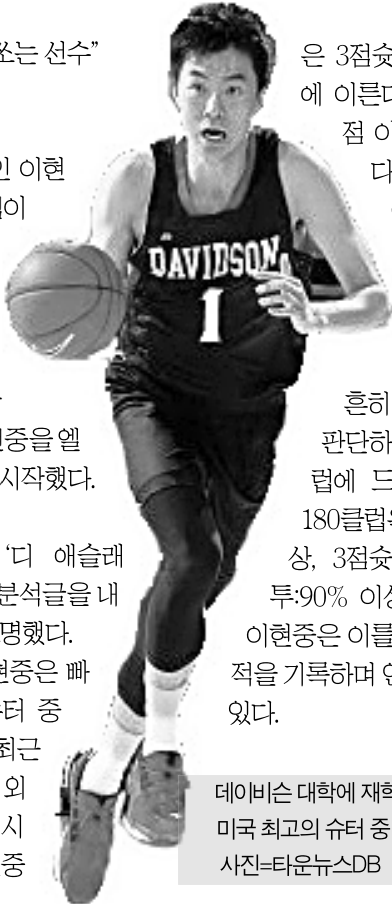


디 애슬레틱 “이현중, 전미 최고 슈터 중 하나”

“하루에 슈트를 1,000개씩 쏘는 선수”
“농구 중독자”

데이비슨 대학에 재학중인 이현중(201cm, F)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이현중은 지난 12일 현재 올 시즌 미국 대학 농구리그(NCAA)에서 평균 15.4점을 기록하며 데이비슨 대학의 공격을 이끌고 있다. 그러자 언론이 이현중을 엘리트 득점원으로 주목하기 시작했다.

12일 ‘점프볼’에 따르면 ‘디 애슬레틱’은 최근 이현중에 대한 분석글을 내놓으며 그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이 매체는 “아직 어린 이현중은 빠른 나이에 미국 최고의 슈터 중 하나로 성장했다.”라며 “최근 데이튼 대학과의 경기에서 외곽슛이 다소 잠잠했지만, 시즌 전체로 놓고 보면 이현중



은 3점슛 성공률이 48.4%에 이른다. 동시에 평균 15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야투율은 53.8%이며, 자유투 성공률도 90%를 넘는 다.”고 그의 활약에 주목했다.

흔히 훌륭한 슈터를 판단하는 지표로 180클럽에 드느냐를 활용한다. 180클럽은 야투율:50% 이상, 3점슛:40% 이상, 자유투:90% 이상을 뜻하는 말로 이현중은 이를 한참 뛰어넘는 성적을 기록하며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

데이비슨 대학에 재학 중인 이현중이 미국 최고의 슈터 중 한 명으로 꼽혔다. 사진=타운뉴스DB

이 매체는 이현중이 역사상 최고의 슈터 중 하나로 불리는 스테판 커리가 졸업한 데이비슨 대학에 진학했음을 주목하며 “이현중은 2015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우승을 차지하는 것을 보고 사랑에 빠졌다고 한다.

특히, 클레이 탐슨과 스테판 커리를 우상시했는데, 결국 탐슨이 졸업한 워싱턴 스테이트 대학, 그리고 커리가 졸업한 데이비슨 대학 가운데 이현중은 커리의 데이비슨 대학을 골랐다. 데이비슨 대학의 스타일이 본인과 잘 맞는다고 느꼈고, 다양한 국제에서 온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며 이현중의 진학 과정을 흥미롭게 여겼다.

맷 맥컬럽 데이비슨 대학 코치는 이 매체를 통해 “이현중은 하루에 약 1,000개의 슈트를 쏘는 선수다. 어려서부터 슈트 터치에서는 강한 자신감을 보여왔다. 이현중을 보면 늘 경기장 안에서 슈트를 쏘고 있거나 스트레칭을 하고 있다. 농구 중독자다.”라며 지지치 않고 연습하는 이현중을 칭찬했다.

맥컬럽 코치는 또 “이현중은뱅크슛(골대를 직접 노리는 게 아니라 백보드를 향해 쏜 후 백보드에 튕겨 골대에 들어가게 하는 슈트) 3점슛을 연습하고 있다. 이현중이뱅크슛 3점슛을 성공시키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현중이 연습 경기에서 결승 득점을뱅크슛 3점슛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생각은 달라진다.”라고 말했다.

이 매체는 이현중의 포부를 인용하며 글을 마쳤다. 이현중은 “NBA 진출이 최종 목표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도 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디 애슬레틱’은 지금까지처럼 침착하면서도 열심히 NBA 진출 준비를 해 나간다면 이현중이 자신의 꿈을 이룰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김하성은 키플레이어 ... SD, 다저스 두렵지 않다”

“한국에서 온 김하성이 샌디에이고(SD)의 키플레이어다.”

‘샌디에이고 스포츠’의 제이 파리스 기자가 지난 11일 캘리포니아 공영 라디오 방송 KPBS에 출연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새 내야수 김하성(26)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샌디에이고가 이제는 지구 라이벌인 LA 다저스에 대적할 전력을 갖췄다고 평가하면서 김하성 영입을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이야기한 것이다.

12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김하성은 지난 시즌을 마치고 포스팅시스템으로 메이저리그에 문을 두드려 지난 1월 샌디에이고와 4년 보장 2800만 달러 계약을 맺었다. 옵션을 포함하면 4년 최고 3200만 달러, 4년 계약 종료 후 상호 옵션을 실행하면 5년 최고 3900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젊은 나이에 중앙 내야

수비가 가능하고, 장타력까지 갖춘 김하성은 코로나19 불황 속에서도 복수 구단의 러브콜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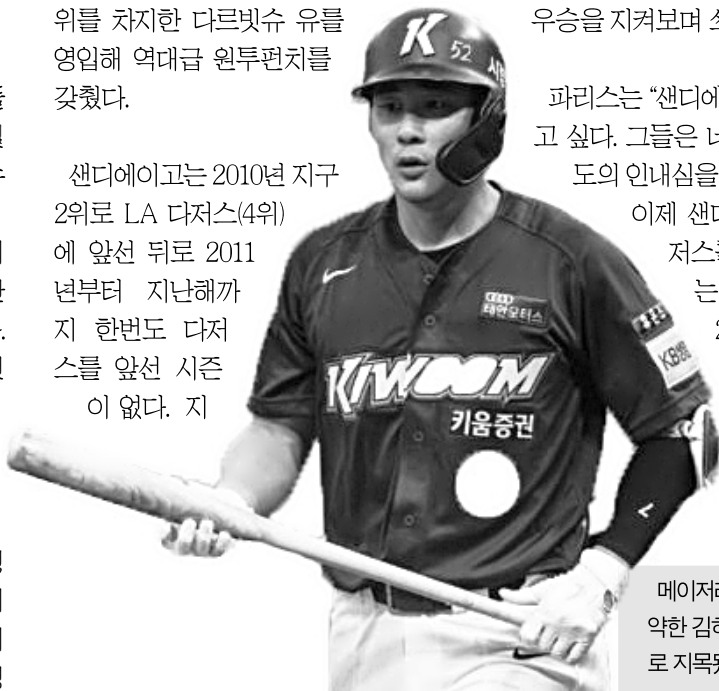
파리스는 “한국에서 온 김하성이 키플레이어다. 그는 내야 모든 포지션에서 뛸 수 있는 선수다. 2루수와 3루수, 유격수까지 된다.”고 김하성을 평가했다.

이어 “샌디에이고 내야진은 이미 갖춰져 있었지만, AJ 프렐러 샌디에이고 단장은 좋은 선수가 보이면 달려들었다. 좋은 선수들이 많이 데리고 있으면 선수층이 두터워지고, 샌디에이고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더 잘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샌디에이고는 김하성 영입 전에 대형 트레이드 2건을 터트렸다. 탬파베이 레이스와 트레이드로 2018년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 투수 블레이크 스넬을 영

입했고, 시카고 컵스와 트레이드로는 지난해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투표 2위를 차지한 다르빗슈 유를 영입해 역대급 원투펀치를 갖췄다.

샌디에이고는 2010년 지구 2위로 LA 다저스(4위)에 앞선 뒤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번도 다저스를 앞선 시즌이 없다. 지



난해 샌디에이고는 지구 2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지만, 다저스의 월드 시리즈 우승을 지켜보며 쓰린 속을 달래야 했다.

파리스는 “샌디에이고 팬들에게 말하고 싶다. 그들은 너무 오래 기다렸고 극도의 인내심을 경험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샌디에이고는 더 이상 다저스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로스터를 갖췄다.”며 2021 시즌에는 샌디에이고가 다저스를 뛰어넘는 성적을 거두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와 계약한 김하성이 팀의 키플레이어로 주목됐다. 사진=타운뉴스B

광고 그래픽 디자이너 모집

모집 인원

풀타임 디자이너 1명

제출 서류

이력서, 포트폴리오 각 1부

서류 제출 방법

info@townnewsusa.com 이메일 제출

기타

서류 심사 후 인터뷰 일정은 개인별 통보함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404-0027 (Rosecrans Ave + Valley View Ave)